

- UN 사무총장, G20개국 재무장관들에게 연간 1,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 기금 마련 방안 촉구
- 7월 8일 안토니오 구테흐스(Antonio Guterres) UN 사무총장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의 재무장관들을 만나 2025년까지 저개발국가와 지역사회가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간 1,000억 달러(한화 약 114조 원) 규모의 기후 금융을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을 촉구함
- 이미 2009년 이들 국가는 재난 취약 국가를 위한 기후 자금을 2020년까지 연간 1,000억 달러로 증액하고,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 2025년부터 더 큰 기금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함
- G20 국가들은 올 11월 개최 예정인 UN 기후 정상회의(COP26)를 앞두고,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청정에너지를 채택하고, 기후 변화에 대응하도록 연간 1,000억 달러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음
- 지난달 G7 정상 회담에서 독일, 캐나다, 일본만 신규 자금을 제안했으며, 이에 대하여 기후 금융 전문가와 환경 운동가들은 미국, 이탈리아, 호주의 공여금 증액을 촉구함
- UN의 취약국에 대한 기후 기금 목표 달성 위해 새로운 이니셔티브 수립 필요
- 국제환경개발연구소(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, IIED)의 앤드류 노튼(Andrew Norton) 국장은 G20이 기후 취약국의 부채 교환 또는 탕감 방식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 및 자연 보호 프로젝트에 사용할 것을 제시함
-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2018년 약 800억 달러가 전달되었지만, UN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연간 1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함
- 회복력 강화에 대한 자금은 개도국을 위한 전체 기후 자금의 1/5에 불과하며, 많은 개도국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과 막대한 재정 스트레스로 인해 UN 기후변화협약 COP26을 앞두고 절박한 자금 전달이 어려워짐
- 방글라데시 국제기후변화 및 개발센터(International Center for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)의 살리무르 후크(Saleemul Huq)소장은 "11월 COP26 이전에 기후 기금을 취약국에 전달하지 못하면 COP26 회담은 성공적이지 못할 것"이라고 엄포함